

노동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노동부는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추락·화재·폭발 등 동절기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대상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큰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사용 공사장 ▲전기열(할로겐등) 사용이 예상되는 공사장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100여 개 공사장(지방노동관서당 2개 공사장에서) 사용중인 안전방망, 수직보호망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성능 시험을 하고, 성능이 미달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수거파기,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은 동절기 산업재해 취약요인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실시된다"라며 "안전시설이 불량한 공사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12월 4일까지 동절기 안전사고·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전국의 77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됐었던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사업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10월말까지 8천여개 사업장, 3만1천여명의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지원해 왔다. 이번에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약 2만 5천명정도가 더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취약한 작업환경과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적용대상의 확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더 많은 근로자가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총 5,9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975명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진폐 4,187명, 난청 729명, 기타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자 285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의 안전대상은 두산건설(주)

10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에서 제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대한민국안전대상은 소방방재청과 경향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내 안전분야 시상식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과 강신철 한국산업안전인증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안전문화 조성에 힘써 온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청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우리청에서는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대상 시상식을 제정하게 됐는데, 시행 첫해부터 각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서 그 성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수상한 기업들의 우수 사례가 널리 전파되고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자는 지난 5월 공고 후 5개월 동안 3차에 걸친 엄격한 현장평가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 같은 결과, 올해에는 '두산건설(주) 대구 워터더 제니스'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금호리조트(주) 화순'와 '휴켄스(주)'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16개의 기업 및 단체, 6명의 개인 및 공무원, 6개의 제품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9월 산업재해자수 늘었다

9월말 산업재해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산업재해자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 9개월 만이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공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9월말 기준 산업재해 통계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자와 업무상 질병자를 더한 산업재해자수는 총



71,760명으로 지난해 9월에 비해 1.3% 증가했다. 반면에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의 비율)은 0.51%로 전년 동기 대비 0.02% 감소했다.

사고성 사망자수는 1,0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0.8% ↓) 감소했으며, 전체 사망자수(질병사망 포함)은 1,6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7명(9.7% ↓) 줄었다.

또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0.74로 전년 동기 대비 0.05P(6.3% ↓) 줄었으며, 전체 사망만인율(질병사망 포함)은 1.17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9P(14.0% ↓) 낮아졌다.

업무상 질병자는 6,2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4명(14.8% ↓) 줄었지만 6월의 3,894명보다는 60.1%가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자는 제조업이 전체의 3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질병은 요통이 과반을 넘는 57.6%(3,591명)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임업에서 재해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임업 재해자는 2,243명으로 지난해 9월(1,165명)보다 무려 92.5% 증가했다. 이는 숲가꾸기사업 등 임업에 희망근로자가 많이 몰린 탓으로 보인다. 이밖에 식음료업 등 기타 사업(11.0% ↑), 전기가스상수도업(4.8% ↑), 건설업(0.7% ↑) 등에서도 재해자가 늘었다. 특히 전기가스상수도업의 사망자는 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로 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산재자 발생현황에서는 5~49인 사업장이 0.7% 감소했음에도 32,603명을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0.2%(24,591명)로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외에 대부분의 규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절단·베임·찢림 재해(43.0% ↑)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총돌재해(25.6% ↓)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사업장 위한 안전보건 자료 보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신규 창업 사업장 10만개소를 대상으로 ‘창업 사업주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 안내자료를 보급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와 건강위해요인 제거 △설비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법정 안전검사 실시 △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 및 사용 △안전정보와 지침 및 교육과 훈련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을 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책무를 담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관련내용을 비닐서류폴더와 책받침 형태로 제작하여

국세청의 협조아래 신규 창업 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전국 각 지방 국세청 및 지역 세무서에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박정선 산업보건국장은 “이 자료는 창업 사업주의 안전보건 활동을 돕고, 사업초기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사업주가 이 자료를 통해 안전보건 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규 창업사업장수는 재창업 및 개인사업 등을 포함해 매년 약 45만개소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신규 창업업종은 음식업, 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도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지지

‘뒤셀도르프 성명서’가 채택·전 세계 확산·실행 지지 내용 담아 지난해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이번에 독일에서 다시금 채택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11월 4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제2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글로벌 포럼’에서 ‘서울선언’을 지지하는 ‘뒤셀도르프 성명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뒤셀도르프 성명서’는 서울선언의 국제적인 실천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성명서 외에도 지난 3월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24개 안전보건전문기관 대표가 서울선언을 지지하는 ‘서울선언 카나리섬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최대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는 “우리 공단은 그동안 제1회 글로벌 포럼의 국내 개최, 서울선언기념관 개관, 서울선언 집행사무국 설치(스위스 제네바) 등 서울선언의 취지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이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향후에도 서울선언의 취지와 의의가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제2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글로벌 포럼’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대회 및 전시회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국제노동기구(LO), 국제사회보장협회 등과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제1회 행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 있다. ☺